*영어어문교육, 15*권 **3**호 **2009**년 가을

그레이엄 그린의 '삼부작' 주제연구: 종교적 갈등의 현실과 미래지향적 신앙의 탐색*

이광희
(공주대학교)

Lee, Kwang-Hee. (2009). A study on Graham Greene's 'trilogy': Religious reality confronted on conflict and future-oriented faith exploratio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5*(3), 333-351.

R.W.B. Lewis called Greene's three novels－*Brighton Rock, The Power and the Glory and The Heart of the Matter*－Greene's 'trilogy'. Greene was paid full attention by many readers and many critics after publishing these Catholic novels. The themes and plots of his Catholic novels are unique and beyond those of traditional Catholicism. Greene is always willing to stand on the edge of reality. He always conflicts with the reality and eagerly searches for a higher, more spiritual dimension. If we view Greene's protagonists from an open-minded viewpoint, Pinkie of *Brighton Rock* will be saved at the mercy and grace of God in spite of being evil. Whiskey Priest of *The Power and the Glory* is worthy of being called a saint in spite of his drunkenness and adultery. Scobie of *The Heart of the Matter* will be within God's grace in spite of his suicide. The reason all protagonists are saint-like is clear and simple because they all have faith and sacrifice themselves to obey God's first commandment, to love others. To summarize the theme of Greene's 'trilogy', we can say that love is the most valuable in the world. God has mercy for all human beings. The protagonists love God and they love others. In fact, Greene's faith is found in his love of human beings and God.

[religious reality/conflict/future/faith exploration/mercy/sacrificial love/edge /disloyalty, 종교적 현실/갈등/미래/신앙탐색/자비/희생적 사랑/가장자리/불충성]

Ⅰ. 서론

그레이엄 그린(Graham Greene, 1904-1991)의 '삼부작'이라는 말은 그린 연구의 선구자적인 비평가인 루이스(R. W. B. Lewis)가 그의 논문의 제목에서 사용한 후 많은 비평가들에게서 별 거부감 없이 사용되고 있다. 그린의 '삼부작'이란 다름

* 이 논문은 2007년 공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아닌 『브라이튼의 막대사탕』(*Brighton Rock* 1938), 『권능과 영광』(*The Power and the Glory* 1940) 그리고 『사건의 핵심』(*The Heart of the Matter* 1948)이다. 이 세 작품은 그린의 주요한 초기 종교소설들이다. 이후 다른 종교소설로는 『사랑의 종말』(*The End of the Affair* 1951), 『타버린 환자』(*The Burnt-Out Case* 1961)와 『명예영사』(*The Honorary Consul* 1973) 등이 있다.

본 논문의 분석대상으로 세 작품을 택한 것은 이들 작품이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서 공인되어 사용되는 '삼부작'으로서의 명칭도 있지만, 이 작품들이 카톨리시즘의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그린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적 갈등의 요소와 그에 따른 방안으로서의 탐색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좋은 분석의 대상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종교적인 현실적 갈등과 미래지향적 신앙의 탐색이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린이 비평가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한 작품은 1938년에 발표한 『브라이튼의 막대사탕』이다. 버나드 버곤지(Bernard Bergonzi)는 이 작품이 이전의 오락작품들과 성격이 다른 종교작품이라는 점에서, 『브라이튼의 막대사탕』을 전이적 위치에 있는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다(Bergonzi, 2002, p. 99). 그러나 실상은 그린이 소설의 소재나 구성을 오락소설에서 진지한 소설로 전환했다는 점으로만 막연하게 『브라이튼의 막대사탕』을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소설로 보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일반적으로 카톨릭 소설에서는 생소한 주인공의 극악한 악의 분위기가 소설 전체에서 압도하는 가운데, 악과 구원이라는 카톨리시즘의 핵심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기 때문이다. 『권능과 영광』에서는 주인공 신부가 등장하는데, 그의 신부로서의 행적은 나약하고 죄의 유혹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만, 결국은 신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사제로 인생을 마감한다. 『사건의 핵심』에서는 주인공이 자살이라는 극단의 방법을 통하여 신의 사랑을 실천하는 파격적인 면을 보여준다. 이처럼 간략하게 세 작품을 살펴보았듯이 그린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은 기존의 틀을 과감히 탈피한다는 점이 획기적이다.

이런 점 때문에 그린은 많은 독자들과 비평가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의 작품에 나타난 악에 대한 압도 때문에 그는 마니교주의자(Maninhaeist)라고 불려지기도 하고(DeVitis, 1986, p. 147), 『사건의 핵심』은 발표 당시 카톨릭 신자들과 교황청으로부터 혹독한 비난과 지탄을 받았고 심지어 에이레(Eire)에서는 한때 판매가 금지된 작품이기도 했다. 이블린 워(Evelyn Waugh) 등은 정통 카톨릭 교리에 입각해서 『사건의 핵심』에 등장하는 주인공 스코비(Scobie)의 자살을 신성모독의 죄로 보고 있을 만큼 이 소설의 구성과 주제에 불만을 나타냈다(Hynes, 1973, p. 10). 그린 자신도 『사건의 핵심』이 출판된 후에 특히 많은 성직자들과 여성들에게서 비난의 편지를 받고 큰 심적 고통을 느꼈다고 술회했다(Duran, 1994, p. 237).

이렇듯, 그린의 종교소설 ‘삼부작’은 루이스(Lewis, 1973, p. 212)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명성을 얻은 작품들이기도 하지만 비난도 못지않았던 작품들이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그린의 ‘삼부작’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린이 그의 작품 속에서 어떻게 카톨리시즘의 입장에서 전통적인 사고의 틀, 즉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종교적 도그마를 깨고 종교적 교리가 담고 있는 정신인 새로운 신앙의 틀로 독자를 압도하고 있는지를 밝히려고 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것과의 현실적 종교적 갈등의 문제이며, 나아가서는 새로운 발상으로의 전환을 찾아나서는 미래지향적 신앙의 탐색 과정이기도 하다.

II. 종교적 갈등의 현실

기존의 체제나 이념, 질서, 교리 등에 갈등하고 저항하는 그린의 성향은 그의 성장과정에서부터 근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그린의 많은 연구가들이 전기적 측면에서 이런 성향을 검토하여 찾아내고 있다. 루이스도 그의 논문, 「악한 성자」(The Picaresque Saint)에서 그린이 어린 시절에 지루함을 벗어버리고 싶어 했던 그의 심정에 유의를 하고 있다(Lewis, 1973, p. 222). 그린 자신도 자서전인 『잃어버린 유년시절과 그 외의 평론』(*The Lost Childhood and Other Essays* 1951)에서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밝힌 바이지만, 그는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는 버캄스테드(Berkhamsted)의 사립 중학교에 다니면서, 참기 힘든 따분하고 지루했던 시간들을 보내며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늘 가졌다고 회상하고 있다. 그린은 아버지의 출중함에 압도되어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에 대한 반발로 가출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런던의 심리치료사에게 보내어 치료를 받게 했다. 그러나 그린은 후일에 회상하기를 심리치료가 자기를 더욱 권태에 고착되도록 했다고 말한다. 22세가 되었을 때에는 일상의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욱 무서운 장난에 빠져든다. 누이동생의 가정교사와 연애에 실패한 후 권태를 모면하려고 백러시아 장교들이 했다는 러시안 룰렛(Russian roulette)게임을 했다. 그 게임이란 권총에 탄환을 한발 장전한 후 약실을 임의로 돌린 후 권총의 총구를 자기의 귀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목숨을 건 위험한 놀이이다.

그런데 그린이 권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공포물에 대한 탐닉이었다. 그는 14세 때에 마조리 보우엔(Marjorie Bowen)의 『밀란의 독사』(*The Viper of Milan*)을 읽었는데, 거기서 인간의 본성이 “흑백”(black and white)이 아니라 “흑과 회색”(black and grey)임을 확신했다(*Collected Essays,* p. 17).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처럼 악이 횡행하고 불행과 무질서가 범람하는 비극적인 세계라는 인식은 아마도 그린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종교에 관심을 가지게 했을 것으로 본다. 그린은 종교적 측면으로 이 세상의 악을 설명한다.

곧 “이 세상은 완전한 선이 다시 걸을 수 없는 세상에서 걸어 다니는 완전한 악”(*Collected Essays*, p. 17)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그린은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린이 인식하는 악과 종교와의 관계는 그린이 쓴 「프란시스 모오략」(François Mauriac)론에도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헨리 제임스(Henry James)이후로 종교적 의식이 영국소설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그것은 인간행동에 대한 중요한 의식이 없어진 것과 같고, 소설의 한 차원이 낮아진 것(*Collected Essays*, p. 91)이라고 그린이 언급한 것을 보면, 그린이 얼마나 “초자연적인 악”(supernatural evil)의 문제와 종교의 문제를 밀접하게 연관해서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Collected Essays*, p. 44).

그린은 옥스퍼드 대학 재학시절인 1925년에 19세의 소녀인 비비안 데이렐 브라운닝(Vivien Dayrell-Browning)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깊은 카톨릭 신앙심을 가진 그녀의 환심을 산 후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가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다(Sherry, 2005, pp. xxiv-xxv)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단순히 결혼만을 위해서 카톨릭으로 개종한 것은 아닌 듯하다. 그린이 프리쳇(V. S. Pritchett)과의 대담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 그것을 잘 입증해 준다. 당시 영국의 카톨릭은 신교로부터 불충성 혹은 반역자라는 말을 듣고 교인 역시 소수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린은 기꺼이 카톨릭을 택한 것이다. 그는 전통적인 종교적 경건함을 싫어해서, 자신이 차라리 카톨릭 무신론자라고 불리어지는 것이 좋겠다(Cassis, 2005, p. 287)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은 그의 생애나 작품을 통해서 볼 때 그가 무신론자라는 말이 아니라, 정통적인 카톨릭 신자가 아니다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린의 이러한 반항적 성향 때문에 그린보다 4년 후에 카톨릭으로 개종해서 전통적인 보수 신앙을 견지한 작가인 이블린 워는 앞서 언급했듯이 그린의 『사건의 핵심』이 발표된 직후에 『타블릿』(*Tablet*) 잡지에 실린 글에서, 그린의 작품을 가장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작품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Waugh, pp. 352-354). 이렇게 볼 때 그린의 종교소설은 교회의 교리와는 일정한 거리를 둔, 교회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제 그린의 ‘삼부작’에 나타난 전통적 성향이나 보수적 경향에 갈등하는 측면을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보도록 하자. 『브라이튼의 막대사탕』에 나오는 주인공 핑키(Pinkie)는 어둠의 거리의 두목으로서 악의 화신처럼 행동한다. 그는 자신을 배신한 헤일(Hale)를 살해함으로써 추적의 대상이 된다. 그를 추적하는 인물이 바로 아이다(Ida)라는 여성이다.

아이다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사회의 불의와 싸우기 위해서 자신의 신변의 안전까지도 위험을 무릅쓰고 개입하는 용감하고 적극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사회의 불의나 타인의 억울한 일에 대해서 개입해서 잘못된 일을 해결하려는 근거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어떤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피상적으로 보기에는 그녀는 자신에 대한 도덕성이나 객관적인

판단력이 있는 여성으로 생각된다. 즉 옳음(Right)과 그름(Wrong)의 세계에서는 그녀의 생각이나 행동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그린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러한 옳음과 그름의 세계의 한계를 인식한다.

왜냐하면 옳음과 그름의 세계는 그 연장선에서 바라보면 "복수"와 "보상"의 세계(*Brighton Rock,* p. 37)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는 철두철미하게 인과응보의 기계적인 계산만이 존재하는 세계이다. 여기에는 더 이상의 사랑이나 자비나 용서 등이 자리하지 못하는 세계이다. 아이다의 집요한 사건 개입의 동기가 다분히 복수와 보상의 틀에 놓여 있는 재미에 근거하고 있다. 페트리샤 쥐 블라이처(Patricia G. Bleicher)는 아이다가 남의 일에 재미있는 부분이 없다면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녀의 관심사는 오직 재미에 대한 사냥에 있기 때문에 그녀를 여자사냥꾼이라고까지 부른다(Bleicher, 2002, p. 119). 복수와 보상은 잘못한 만큼 벌을 받고 잘한 만큼 보상을 받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세계란 이런 수학적이고 기계적인 것 이상의 이해와 관용과 사랑이 요구되는 세계이다.

또 하나의 아이다의 한계는 그녀가 내세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직 현세의 문제에만 집착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세상살이의 어려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느낀 적이 없어서 낙관적인 성격을 소유하고 있다. 내세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고 오직 현세에 매여서 쾌락을 추구한다. 그녀는 많은 남성들과 육체적인 쾌락을 즐긴다. 이렇게 현세적 육체적 쾌락의 추구는 결혼을 해서 자식을 가지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게 만든다. 아이다의 현실중심주의적인 세계는 종교에서 추구하는 세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세계이다.

『권능과 영광』에 나오는 공산경위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이다와 유사하다. 공산경위는 공산정권 밑에 있는 멕시코에서 사역하는 주인공 위스키 신부를 체포하기 위해서 추적하는 공산주의 열성 당원이다. 그는 이상적 공산주의의 이념으로 완전 무장된 사람이다. 하루 빨리 이상적 공산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멕시코 인민을 구출해 건져내야 되겠다는 신념에 불타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검소하고 금욕적이어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인물이고, 그의 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성실성은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는 강인하고 흐트러짐이 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 그는 적당히 타협하고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유약하고 나태한 삶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의 의도된 준엄한 걸음걸이는 마치 신부의 당당한 풍모를 연상시킨다. 로버트 호스킨스(Robert Hoskins)는 공산경위가 독신 생활을 고집할 만큼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자기 신념에 따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고도로 훈련된 삶을 산다는 면에서, 신부 이상의 "신부다운"(priestlike) 면모를 보여준다고 평하고 있다(Hoskins, 1999, p. 265).

그의 공산사회주의 이념은 철저히 유물론적 사상에 기인하고 있다. 모든

만물은 물질이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물질에 대한 이해가 곧 이성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에게 신의 존재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에 당연히 무시될 수밖에 없다. 그가 위스키 신부를 체포하여 처형하려는 것도 바로 종교가 공산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인민의 의식을 좀먹게 하는 위험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공산경위는 신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한다. 자신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주의의 불가사의한 일로 그것이 여겨지기 때문이다.

공산경위의 유물론적 사상은 영적인 경험의 한계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에 더 큰 함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산경위는 자기 상사인 경찰서장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해서 불만인 만큼 철저한 직무자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적인 공산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는 전체주의의 사고에 젖어 있다. 그는 위스키 신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 죄가 없는 마을 사람들을 한 사람씩 인질로 잡아다가 차례로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 공산경위에게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라는 것은 전체 인민 숫자 중에서 극히 작은 산술적 분수의 하나로 보는 유물론적 가치관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세계와 다른 유물적 세계관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린의 작품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는 쥬디스 아담슨(Judith Adamson)은 위스키 신부와 공산경위의 관계를 “신의 종교”와 “인간의 종교”의 대립으로 보고 있다(Adamson, 1990, p. 62). 그린은 아담슨이 표현하는 인간의 종교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자기모순에 가득 차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모순은 공산사회주의의 이념과 혁명과정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린은 종교내부에서도, 그것도 신앙심이 열렬한 사람들의 신앙과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이런 비슷한 오류와 모순된 일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위스키 신부가 도피하는 여정 중에서 수도 빌라허모사(Villahermosa)에 들어와서 술을 사려다, 그곳의 금주령을 위반한 죄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갇히게 된다. 그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잡혀온 수많은 사람들의 군상을 보게 된다. 술집에서 살인한 죄로 잡혀온 노인이 자신의 딸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게 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남녀가 만나 음탕한 소리를 내는 것도 엿듣게 된다. 그러나 위스키 신부는 사람 사는 다양한 모습을 수용하고 그들 저마다의 사정을 이해한다. 도리어 위스키 신부가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만난 신앙심이 깊은 여인이다. 이 여인은 위스키 신부의 안전을 염려해서, 온갖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는 유치장 속에서 현상금이 붙어있는 신부의 신분을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위험하지 않느냐고 충고해 준다. 그러나 위스키 신부는 그 말을 고맙게 받아들이기는커녕, 그녀의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불신을 미워한다. 그래서 그녀가 자기의 고해성사를 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지만 들어주지 않고 대신에 회개 기도문을 외우라고 퉁명스럽게

말한다. 위스키 신부는 신앙의 교리에 빠져있는 것보다는 신앙의 정신 속에 들어 있는 인간이해의 모습을 더 귀하게 생각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인간이해나 사랑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사건의 핵심』에 나오는 주인공 스코비의 아내 루이스(Luise)는 『브라이튼의 막대사탕』에 나오는 아이다와는 달리 모태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다처럼 지극히 현세지향적인 삶을 산다. 그녀는 남편 스코비가 서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누구보다 성실히 오랫동안 근무했지만 서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것을 불만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자존심 상하는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자기 주변 여성들과의 사교모임에 기피하기도 하고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가 없다고 남편에게 투정을 부린다. 급기야는 재미없고 짜증스런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녀는 집에 돈이 없는 줄을 알면서도 남편에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장기해외여행을 보내 달라고 조른다. 후에 스코비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밀수업자인 유셉(Yusef)에게서 돈을 빌리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스코비는 유셉의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덫에 걸리게 된다.

이처럼 루이스의 허세적이고 자기 과시적인 삶은 오직 현세의 일들만이 중요하고 내세에 대한 관심은 거의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모태신앙을 가졌지만 신의 존재, 구원, 은혜, 자비, 소망, 사랑 등의 종교의 본질적인 문제에는 고민도 없고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그녀의 신앙생활이란 아주 외적인 습관적 종교활동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그녀의 주관심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서 고해성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미사에 참석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고작 관심거리일 뿐이다. 그녀의 피상적 신앙은 내세적이고 영혼 구원적인 카톨리시즘과는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루이스는 현세지향적인 삶의 태도로 인하여 똑같은 부류의 윌슨(Wilson)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윌슨은 씨에라 레온(Siérra Leóne)에 새로 부임한 정보업무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미혼의 인물이다. 윌슨은 남편이 승진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의기소침 되어 있는 루이스에게 쉽게 접근한다. 그들의 처음 이야기의 소재는 그들이 둘 다 좋아하는 문학과 시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그들은 만난 지가 두 번째 밖에 되지 않았는데, 윌슨은 루이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키스를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가벼운 감정의 놀음인지를 알 수 있다. 윌슨이 루이스를 바라보는 시각은 먹이감을 두고 주위를 맴도는 늑대들처럼 “악의와 속물의 세계”(*The Heart of the Matter*, p. 32)를 그대로 드러내 보인다.

윌슨의 악의와 속물근성은 그가 스코비를 대하는 태도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윌슨은 스코비에게 당신의 아내 루이스와 키스를 했노라고 노골적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책을 좋아하지 않고 문학이나 예술적 감각이 없는 스코비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비방하는 말로 그를

업신여긴다. 그는 여기에 더하여 스코비와 유셉의 관계에 무슨 밀약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정보를 캐기 위해서 개인 정보원을 고용할 만큼 집요하게 스코비의 뒤를 추적한다. 그런데 그 추적의 동기가 사회의 불의에 참지 못하는 정의감의 발로 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루이스와의 낭만적 사랑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지극히 이기적이고, 상대방의 약점을 노리는 비열한 의도에서 나온 점이 윌슨과 루이스의 사랑의 수준을 짐작케 한다. 그 사랑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이고 추악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이상의 '삼부작'에 등장하는 몇몇 인물들의 한계점들을 종교적 갈등의 현실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 갈등의 현실이라는 것은, 그린이 그리려고 하는 더 높은 차원의 등장인물들의 모습과 대비되어 새로운 미래의 신앙적 탐색의 모습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자, 극적 효과를 더해 주는 배경 역할이라고 말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눈멈"(blindness)이란 좋은 시력이 없어진 것을 의미하듯, 악이란 선한 것이 박탈된 것을 의미한다(Bergonzi, 2002, p. 95). 이와 같이 악이 선에 종속되는 것처럼 종교적 갈등의 현실은 더 나은 신앙적 미래를 탐색하기 위한 출발점과도 같은 것이다.

III. 미래지향적 신앙의 탐색

본 장에서는 그린이 '삼부작'에서 어떤 신앙적인 것을 궁극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지를 각 작품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브라이튼의 막대사탕』의 주인공 핑키는 악의 상징처럼 보인다. 그는 타고난 성격이 거칠고 난폭하다. 어려서부터 친구들과 놀 때에 곤충을 잔인하게 죽이는가 하면,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싸울 때에도 면도칼을 사용할 정도로 폭력적이고 잔혹한 면을 그는 가지고 있다. 작중화자는 핑키가 저주의 인물로, "핑키의 핏속에는 독이 흐르고 있다.... 그는 자신이 몰고 다니는 구름이 있었는데, 지옥이 어렸을 때부터 주위에 맴돌았다. 그에게 더 많은 살인이 기다리고 있다"(*Brighton Rock*, p. 68)고 서술하고 있다.

핑키는 자기 조직의 부하인 스파이서가 마음이 약해서 암흑조직의 일을 처리하는데 과단성이 없는 것을 불만으로 여기어서, 그를 상대 조직의 공격에 노출되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죽게 만든다. 그는 이처럼 스파이서에 대한 간접살인을 저지르는데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은 채 실행한다. 그는 교활하게 범행의 현장에 몰래 숨어서 스파이서가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것을 목격한다.

그런데 핑키는 스파이서 사건의 현장에서 스파이서가 처참하게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것을 숨어서 목격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도 신체적인 위해를 받아서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철면피처럼 냉혈적인 핑키도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다. 스파이서에 대한 미안함과 측은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핑키가 이런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느냐를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핑키는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스파이서의 몸 위에 썩은 나무를 십자로 올려놓고, 스파이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그 내용은 그가 참회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스파이서의 구원을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이 다급한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할 생각을 했을까? 그때 핑키는 어렸을 때 성가대원으로도 활동했고 신부가 되려는 꿈도 가졌던 카톨릭 신앙을 떠올린다. 핑키는 참회를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기주장이 강한 핑키는 신앙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의해서 행동을 이어간다.

핑키는 스파이서의 사건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고민에 빠져든다. 그것은 스파이서의 사건에 대해서 로오즈(Rose)가 소상히 알고 있고, 아이다는 로오즈를 뒤 쫓아서 스파이서의 사건에 대한 핑키의 개입을 파헤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핑키와 로오즈는 동향인으로 우연히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다. 둘은 마음이 가까워지면서 서로의 관심사인 종교문제에까지 대화를 나눈다. 그런데 마음이 지순한 로오즈는 천국이 있다고 믿는 반면에, 핑키는 지옥만이 있다고 믿는다. 이점에 대해서, 라마 레오(V. V. B. Rama Rao)는 핑키가 악이나 악마를 믿는다는 것은 신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Rao, 1990, p. 46). 하비 커티스 웹스터(Harvey Curtis Webster)는 핑키가 천국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밖에 느끼지 못하고 지옥을 믿고 살지만, 옳고 그름의 세상적 개념과 다른, 선과 악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카톨릭 신자”라고 분석하고 있다(Webster, 1963, p. 14). 핑키에 대한 레오의 견해는 핑키의 신앙에 대한 일반적인 지적임에 반해서, 웹스터의 견해는 훨씬 구체적임을 알 수 있고 그린이 이 소설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옳고 그름의 세계와 선과 악의 세계의 확연히 다른 점을 정확히 지적해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로우즈는 핑키의 정체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핑키의 요구를 받아들여 결혼까지 약속한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세계에서의 가치 기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바보스런 일이다. 그러나 로오즈는 옳고 그름의 세계의 기준을 과감히 뛰어넘는다. 그녀는 핑키에 대한 연민으로 인해, 불행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럴드 에이취 콕스(Gerald H. Cox Ⅲ)는 로오즈에게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동정녀 마리아의 상을 발견한다(Cox, 1970, p. 29). 버곤지는 로오즈가 핑키와 함께 자살을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현장으로 가는 도중에 나누는 대화에서, 인생이란 나쁜 것이 아니야라는 말에 주목한다.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보면 로오즈의 자살동참이란 핑키 때문에 겪는 어처구니없는 희생이요, 무모한 일이지만 그녀는 핑키를 탓하거나 자신의 운명을 탓하지 않는다. 최후의 순간까지 타락한 세상에서 희망을 갖는 것이 핵심적인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을

핑키에게 알려주면서, 핑키의 구원의 희망을 붙잡고 있는 그녀의 희망의 신앙을 엿 볼 수 있다. 이런 신앙은 옳고 그름의 세계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선과 악의 세계로만 이해되는 세계이다.

그린은 악의 상징인 핑키와 선의 상징인 로오즈가 서로 반대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작중화자는 이들의 결합을, "그녀는 그를 완성시켜주는 어떤 것이다. …그 속에 가장 악한 것이 그녀를 필요로 했다. 그것은 선이 없이는 지낼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존재했다"(*Brighton Rock,* p. 126)라고 표현한다. 작중화자는 이어서, "선과 악은 같은 나라에 살고 같은 언어를 이야기하고 옛 친구처럼 지내고 같은 완성도를 느낀다(*Brighton Rock,* p. 127)고 서술하고 있다. 쿨쉬레스타(J. P. Kulshrestha)는 이 부분을 선과 악이 만나, 싸우지 않고 형제애를 가진다"고 설명한다(Kulshrestha, 1977, p. 66). 드비티스의 표현대로 로오즈와 핑키의 관계는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는 있지만 동전의 앞 뒷면으로 같은 세계에 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DeVitis, 1986, p. 71). 이점이 그린이 강조하고 있는 종교의 세계이다. 이렇게 볼 때 악의 화신인 핑키는 옳음과 그름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지만, 선과 악의 세계에서는 핑키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그린은 종교적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권능과 영광』에 나오는 위스키 신부는 핑키의 경우처럼 그가 구원을 받았을까 받지 못하였을까가 문제의 핵심이 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그가 어떤 면에서 성자의 모습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고 있고, 나아가서는 그런 모습을 이 땅의 삶과 사역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는지가 논의의 초점이 된다.

이 소설의 첫 부분은 방관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대부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거나 공산정권의 종교탄압으로 인해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위스키 신부가 처음 만나는 사람인 텐취(Tench)의사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영국사람으로서 가족과 떨어져서 멕시코에서 14년 동안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공허한 인물이다. 이런 감정은 비단 텐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소설의 처음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고 위스키 신부 역시 예외가 아니다. 나아가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적 모습이기도 하다.

위스키 신부는 다른 등장인물과 같은 이런 공허한 삶의 현장에 있지만, 다른 등장인물 보다 더 큰 삶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 그에게는 생명까지도 위협하며 종교활동을 탄압하는 공산정권하에서 신부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다. 그가 잘 아는 호세(José) 신부의 경우는 신부로서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 받기 위해서 공산정권에 굴복하여 신부의 사명을 다 포기하고 가정부와 결혼하여 비굴한 삶을 살아간다. 위스키 신부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가

되면 처형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위스키 신부는 평화로운 시기에 많은 신도들에 의해 둘러싸여 그들의 사랑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타인에 대한 이해나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자신의 위급하고 초조한 심정과 정황 속에서 새롭게 깨닫는 놀라운 영적 각성의 체험을 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위스키 신부가 추적당하는 수동적 여정은 미래를 향한 영적 탐색을 하게 되는 적극적 과정으로 변화되어간다.

위스키 신부에게 영적변화를 일으키게 만든 중요한 계기 중의 하나가 브리지다(Brigida)라는 딸과의 만남이다. 그는 공산정권에 의해 집요하게 추적당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심한 공포감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자주 마시는가 하면 마리아(Maria)라는 여인과 육체적 사랑을 나눈 결과로 딸을 사생아로 가졌다. 이런 것이 연유가 되어 위스키 신부는 도피의 여정에서 고향마을을 찾게 된다.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도 고향마을에 들어가는 그는 사랑을 나누었던 여인과 딸을 만난다는 설레임이 있었고, 고향 사람들도 미사를 보거나 고해성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자신의 출현을 은근히 기뻐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막상 그가 고향마을에 나타났을 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 냉랭하다. 누구 하나 그를 반기어서 악수를 청하거나 축복기도를 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없다. 그의 신부로서의 불성실함과 도덕성이 결여 된 인격 등으로 인해서 마을사람들은 그를 내심으로 존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처지에서 위스키 신부가 딸과 만나게 되는 장면도 행복한 순간이기보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장이 될 수밖에 없다. 어린 딸이 위스키 신부를 보고도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까닭에, 위스키 신부는 그녀에게 사랑한다면서 내가 네 아버지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손을 뿌리친다. 이때 위스키 신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로서 딸에 대한 죄책감, 연민과 책임감을 느낀다. 딸아이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주름진 얼굴을 하고 있었고, 어린 아이의 태평스럽고 순진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세파에 시달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스키 신부는 이런 애처로운 딸을 어쩔 수 없이 떼어놓고 이별을 해야 하는 자신을 견디기 힘들어 하며, 신에게 기도한다. 신부는 자신이 죽음의 대가를 갚아도 좋으니 이 아이를 구해 달라고 간구한다. 위스키 신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The Power and the Glory*, p. 82)을 벌써 알고 있다. 위스키 신부는 혈육의 정을 통해서 신의 사랑을 인지하고 체험하는 중요한 계기를 맞게 된 것이다.

딸을 통한 회개와 책임감 그리고 사랑을 체험한 위스키 신부는 자기에게 걸린 현상금 때문에 자신을 추적하는 한 혼혈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혈육의 정을 넘어서 더 큰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게 된다. 위스키 신부는 고향마을을 떠나서 자신의 부모가 묻힌 곳인 카르멘(Carmen)으로 향하게 되는데, 도중에 그는 한 혼혈인을 숙명적으로 만나게 된다. 혼혈인은 위스키

신부의 정체를 파악해서 신분이 신부로 확인된 뒤에는 곧바로 신고하여 현상금을 타려고 유인하는 말을 건다. 위스키 신부는 혼혈인의 의도를 충분히 알아차리지만 그를 따돌리지 않는다. 길을 가는 도중에 혼혈인이 감기에 걸려 춥다고 하자 자기의 옷을 벗어준다. 혼혈인이 가롯 유다(Judas Iscariot)가 분명한데도 그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위스키 신부는 마음 속에 악을 선으로 갚았다는 작은 만족감을 느낀다. 위스키 신부는 철저히 절망에 이른 후에 인간의 영혼과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이로써 위스키 신부와 혼혈인 사이에는 무장해제와 같은 평화가 자리한다. 물론 위스키 신부가 적을 돕는 희생적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적으로 가능해진 일이다. 이때 혼혈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에게 신부임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자, 위스키 신부는 그렇다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비록 위스키 신부 쪽에서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되기이지만, 작중화자는 "그들이 서로 대치해 있던 군인 참호에서 나와서 서로 친구가 되어 만나는 것 같다"(*The Power and the Glory*, p. 100)라고 말한다. 혼혈인이 위스키 신부를 당국에 신고할 여건이 아니어서 신고를 미루고 있던 차에 그들은 여기서 기약 없이 헤어지게 된다.

결국 위스키 신부와 혼혈인의 숙명적 만남은 그 다음의 만남에서 이루어진다. 위스키 신부가 빌라허모사에서 안전한 목적지인 라스 카사스(Las Casas)로 3일 후면 도착할 꿈에 부풀어서 안내인과 함께 막 떠나려는 시간에 느닷없이 혼혈인이 나타난다. 그는 위스키 신부에게 타바스코(Tabasco)에 한 미국인 강도가 총상을 입어 고해성사를 위해 신부를 찾고 있으니 그리로 가자고 한다. 위스키 신부는 혼혈인의 속셈을 짐작하고 그 길이 자기의 목적지와 반대 방향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혼혈인이 자기를 속이려는 계략일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서 정말 총상을 입은 강도가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 자기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기로에서 그는 후자의 길을 택해서 가던 길을 돌아서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 간다. 결국 그는 당국에 잡히게 된다.

이 사건은 외형적으로는 위스키 신부가 혼혈인에 속아서 불행한 죽음의 길에 들어선 것으로 보여지지만, 내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총상을 입은 강도가 위스키 신부의 뜻하지 않은 출현에 의해서 신앙적인 중요한 계기를 맞았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면, 위스키 신부는 혼혈인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더 큰 신앙의 세계의 확신 속에서 적극적인 신앙의 뜻을 행동으로 실천한 것이다.

처형을 앞두고 있는 위스키 신부는 공산경위와 마주하게 된다. 위스키 신부는 인간이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죽게 마련이고 현재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구에게도 원한의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 그는 이때 사랑하는 자기 딸을 위해 기도한다. 바로 "이런 마음이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그가 진즉 느꼈어야 했던 사랑이다"(*The Power and the Glory*, p. 208)라고 생각하며 울음을 터뜨린다. 위스키 신부에게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세상도 두렵지 않지만, 오직 하나 신 앞에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한만이 있을 뿐이다. 그 회한은 곧 신에 대한 믿음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다름 아니다. 이렇게 위스키 신부는 희망 속에서 미래를 맞고 있지만, 공산경위는 신부의 타인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희망을 보며, 그를 추적했던 자신이 승리자가 아니고 오히려 초라한 패배자임을 의식하게 된다.

이처럼 위스키 신부가 성자로서 그의 생을 마감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에 나오는 주인공 스코비는 카톨릭 신자로서 고통 받는 이웃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베풀지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스코비의 구원 문제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찰서 부서장인 스코비는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에서는 성실함과 공정함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당시 서아프리카 사회는 전쟁으로 인한 불안, 공포, 불법, 불의 등이 성행하고, 대부분이 흑인주민인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곳에서 스코비는 주민들을 친절히 대해주고 업무를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정의로운 스코비”(*The Heart of the Matter,* p. 18)로 통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인격적으로 흠이 없고 업무적으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스코비가, 한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인격과 마음의 중심을 잃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스코비는 바다의 풍랑에 의해서 난파되어 40여일 동안 표류된 배에서 가까스로 구조된 헬렌(Helen)이라는 19세 된 결혼 미망인을 업무상 만나게 된다. 스코비는 죽은 자신의 딸 캐서린(Catherine)를 생각하고 젊은 나이에 미망인이 된 그녀에게 한없는 동정심과 연민을 느낀다.

스코비가 고통받는 타인에 대한 동정심을 갖는 이유는 그의 세계관에 기인하고 있다. 스코비는 이 세상이 불행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낙관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것이라는 것이다. 작중화자는 이 세상은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사건의 핵심”(the heart of the matter)(*The Heart of the Matter,* p. 124)이라고 부르고, 그러므로 고통 받는 타인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그러면 이 세상은 불행만이 가득해서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일까? 작중화자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끝없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은 자기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진리를 여는 열쇠”(the hint of explanation)(*The Heart of the Matter,* p. 121)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스코비의 헬렌에 대한 연민은 일시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의 세계관에 기인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헬렌은 경찰서장으로 승진을 앞두고 있는 스코비가 자기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마음의 부담을 느껴 그에게, 당신의 연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연민이 그의 가슴속에 부식물처럼 연기로 가득하다”(*The Heart of the Matter,* p. 178)는 것을 알 수 있다. 드디어 스코비는 연민에서 나온 사랑의

고백을 헬렌에게 편지로 쓴다. 당신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보다, 자기 아내 루이스보다, 신보다도 사랑한다는 것이다.

스코비의 이런 연민에서 나온 사랑 고백은 자기 아내 루이스가 남아프리카로의 장기여행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에 현실적인 커다란 문제로 대두된다. 사실 스코비의 연민은 헬렌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아내 루이스에게도 연민을 가지고 있다. 그는 결혼초기에 젊고 힘차고 아름다움을 잘 간직하고 있을 때에 아내에 대한 사랑보다도 늙어서 볼품도 없고 힘도 자신감도 사라진 지금, 그녀의 매력이 사라진 것 때문에, 그는 "아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녀의 행복에 대한 책임감을 더 의식하는"(*The Heart of the Matter*, p. 21), 연민의 사랑과 책임감을 느낀다.

스코비는 가련한 미망인인 헬렌과 사랑하는 부인 루이스 사이의 난감한 삼각관계 속에서 두 여인 중에서 어느 한 명만을 택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심한 고뇌를 한다. 그는 혼자서 방황하며 고민을 하다가, 랭크(Rank)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며 난감한 사실을 털어 놓는다. 랭크 신부는 이제 헬렌을 그만 만나라고 충고해 주지만 스코비는 따르지 않는다. 만약 신부의 말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원만히 해결되겠지만 그럴 경우, 헬렌이 그녀를 집적거리는 술주정뱅이 백스터(Bagster)에게 돌아가게 되어 불행해질 것 같은 생각이 그에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생각한다.

그는 헬렌이나 루이스 중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고 예수처럼 자신을 버리기로 결심을 한다. 자신을 버려서 자살한다는 것은 교회나 신부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것은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죄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예수도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신의 아들을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스코비는 타락한 신부들이 거짓된 양심과 육욕에 빠진 채 성체를 행하는 위선된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사랑과 연민과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에게 불경한 짓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한다. 스코비는 자신의 죽음의 선택도 교회의 제도의 관점에서 보면 불경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죽음의 동기는 죄인을 위한 예수의 희생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그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며 극약을 먹고 바닥에 쓰러져 최후를 맞는데, 그는 자신의 목에 건 이름 모를 어느 성자의 메달에서 나는 쨍그랑 하는 소리를 듣지 못 한 채 죽는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그의 사후에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헛된 죽음이 아니라 성자의 희생임이 드러난다.

이처럼 그린의 주인공들은 피상적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복잡하고 깊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모태 카톨릭 신앙을 가진 작가이며 비평가인 안토니 버거스(Antony Burgess)는 그린이 지적인 확신을 가진 신앙을 추구했다는

면에서는 그를 좋은 카톨릭 신자로 보고 있고, 반면에 지나친 이성적 신앙의 추구가 이단으로 빠질 유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를 나쁜 카톨릭 신자로 보고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작가는 기존의 기준이 되는 것을 뛰어 넘어서 문제를 제기하여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Yamagata, 2002, p. 400 재인용). 바로 그린이 그 일을 해낸 작가로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Ⅳ. 결론

세 작품에 나타난 미래지향적 신앙의 탐색과정을 요약해 보면, 그린은 『브라이튼의 막대사탕』에서 인간의 구원이 인간 행위의 옳고 그름에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핑키의 악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끔찍하고 잔혹해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극악무도한 것이다. 그런데 그린은 이렇게 악독한 핑키의 외형적 행위 속에 감추어진 자기 부하인 스파이서에 대한 안쓰러운 생각, 특별히 그의 영혼의 구원문제에 대한 관심과 염려, 그것에 대한 해법으로서의 어렸을 때 가졌던 신앙으로 기억해낸 회개와 간구의 모습 등을 통해서, 그린은 핑키가 신에 대한 신앙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핑키가 옳음과 그름의 기준이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에서 신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핑키의 겉에 드러난 행위에 있지 않고 인간의 내면과 행위의 동기까지도 살피는 신의 자비에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권능과 영광』에서 위스키 신부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를 평가한다면, 죄에 대해서 한없이 나약해서 술과 세상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신부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는 있지만 종교를 탄압하는 공산정권에 굴하지 않고 타바스코에서 유일하게 남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신부의 사역을 비밀리에 감당한다. 더욱 그는 자신의 사생아 딸인 브리지다에 대한 혈육의 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그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신에 대한 사랑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위스키 신부는 육친을 통한 경험적 사랑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체험적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게 된다(Choi, 1990, p. 69). 종교의 교리나 교회의 피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체험적 신앙을 소유한 열려진 세계에 들어간 그에게, 신의 사역자로서의 사명감으로 그는 쉽게 죽음을 초월한다. 그는 현상금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혼혈인에게도 친구가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고해성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자기 목숨을 담보하고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게 된다. 그는 신의 자기희생적 사랑을 이 땅에서 믿는 그대로 실천한 성자이다. 머레이 로스톤(Murray Roston)은 위스키 신부를 반영웅(anti-hero)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위스키 신부가 사회적 실패자나 악한(picaro)이 아니고, 부분적 영웅(partial hero)도 아니고, 윤리적 영적

기준이 사라진 이 시대에 실상은 유일한 도덕적 모범자라는 뜻으로 로스톤은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Roston, 2006, p. 41).

『사건의 핵심』의 스코비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철학이 있다. 하나는 이 세상은 불행으로 가득해서 누구나 이 불행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자기를 희생하여 이 불행을 막아내는 일이라고 스코비는 생각한다. 그가 헬렌과 루이스 사이에서 어느 누구 하나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신을 버리기로 하고 자살의 방법을 택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일관된 그의 철학과 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가 신의 계율을 어긴 것만은 부정할 수 없지만 신의 자기희생적인 사랑의 정신은 배반하지 않은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추기경 뉴우멘(Newman)은, 그린이 "죄 있는 사람의 죄 없는 문학"(a sinless literature of sinful man)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한다(Roston, 2006, p. 43 재인용). 스코비의 사랑은 교리의 단순한 설파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통해서 드리는 자기희생적 신앙적 실천임을 깨달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희생적 사랑이 이러한 사랑을 받을 만큼 값어치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찮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한 젊은 미망인을 위해서 행한 일이라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그러나 스코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한다. 예수는 어떤 고귀한 사람, 희생적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만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은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다. 이처럼 스코비의 죽음은 카톨리시즘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을 담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 그린은 기존의 신앙적인 해석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찾아나서는 신앙적 영적 탐색자이다.

이렇게 기존의 현실에 갈등하고 새로운 미래를 찾아서 탐색하는 그린의 노력은 그의 일관된 작가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그린은 이미 1948년 프리체트(V. S. Prichett)와의 서신 교환에서 국가에 대한 작가로서의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작가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이미 수용된 의견으로 한정시켜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동정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금하지만, 작가의 국가에 대한 불충성심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실험적으로 시도하도록 격려해 준다. 즉 작가의 불충성심이 소설가에게 여분의 차원의 동정심을 제공해준다(*Why Do I Write*?, 1948, pp. 47-48)는 것이다.

그린은 1969년 함부르크(Hamburg) 대학교에서 행한 셰익스피어 상 수상 연설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불충성의 미덕을 언급했다. 작가의 임무는, 카톨릭 사회에서는 개신교 신자처럼, 개신교 사회에서는 카톨릭 신자처럼,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의 장점을 찾아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산주의의 장점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Stratford, 1973, p. 609). 그린이 이렇게 어느 체제나 이념에 전적으로 충성적이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현실세계의 체제나 이념, 사회제도 등은 완전하지 못하여 그것에 안주할 수 없다는 그린의

인식 때문이다(Mesnet, 1971, p. 117). 그러기에 그린은 항상 기존의 것, 전통적인 것,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고 공유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실험하고 도전하고 개척해 나가는 자유주의자이다. 그의 소설의 주인공들도 이처럼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나 조직의 중심부에서 한 발 물러서서 다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나서는,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Woodman, 2002, p. 143).

그린이 그의 종교소설의 '삼부작'에서 그리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도 전통적인 신앙의 입장이나 종교체제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불만스러운 점들이 많고, 심지어는 이단시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그린의 종교소설과 문학세계를 기존의 종교의 교리적인 측면의 틀에 한정시켜 바라보는 오류 때문이다. 우리는 기존의 교리의 틀을 벗어나서 열린 마음으로 그린의 종교소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린의 종교소설에 담긴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곧 신의 인간에 대한 자비와, 신에 대한 인간의 사랑과,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인간의 신에 대한 사랑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결국 그린의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다.

참 고 문 헌

Adamson, J. (1990). *Graham Greene: The dangerous edge*. London: Macmillan.

Bergonzi, B. (2002). Upon this rock: The launch of a catholic novelist. In W. T. Hill (Ed.), *Perceptions of religious faith in the work of Graham Greene* (pp. 81-108). New York: Peter Lang.

Bleicher, P. G. (2002). Missing the good news: Graham Greene's shadow-side theology. In W. T. Hill (Ed.), *Perceptions of religious faith in the work of Graham Greene* (pp. 109-138). New York: Peter Lang.

Cassis, A. F. (Ed.). (2005). *Graham Greene: Man of paradox*. Chicago: Loyola University Press.

Choi, J. S. (1990). *Greene and Unamuno: Two pilgrims to La Mancha*. New York: Peter Lang.

Cox, G. H. Ⅲ. (1970). Mystical rose in Brighton. In *Renascence, 23, No. 1(Autumn 1970),* 30-45.

DeVitis, A. A. (1986). *Graham Greene*. Boston: Twayne.

Duran, Fr. L. (1994). *Graham Greene: An intimate portrait by his closest friend and confidant*. Trans. Euan Cameron. London: HarperCollins.

Greene, G. (1984). *Brighton Rock*. New York and London: Penguin.

Greene, G. (1978). *Collected Essays*. New York and London: Penguin.

Greene, G. (1977). *The Heart of the Matter*. New York and London: Penguin.

Greene, G. (1948). Elizabeth Bowen, and V.S. Pritchett. *Why Do I Write?: An exchange of view between Elizabeth Bowen, Graham Greene, and V.S. Pritchett*. London: Marshall.

Greene, G. (1980). *The Power and the Glory*. New York and London.

Hoskins, R. (1999). *Graham Greene: An approach to the novels*. New York: Garland Publishing.

Hynes, S. (Ed.). (1973). *Graham Green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Kulshrestha, J. P. (1977). *Graham Greene: The novelist*. New Delhi: Macmillan Co. of India.

Lewis, R. W. B. (1973). The 'trilogy of Graham Greene.' In S. Hynes (Ed.), *Graham Green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pp. 49-75). Englewood: Prentice-Hall.

Mesnet, M. B. (1971). Graham Greene. In G. A. Panichas (Ed.), *The politics of twentieth-century novelists* (pp.100-124). Trans. R. J. Ricard. New York: Hawthorn Books.

Rao, V. V. B. R. (1990). *Graham Greene's comic vision*. New Delhi: Reliance Publishing House.

Roston, M. (2006). *Graham Greene's narrative strategies: A study of the major novel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Sherry, N. (2005). *The life of Graham Greene: Volume Ⅲ, 1955-1991*. New York: Penguin Books.

Stratford, P. (1973). *The portable Graham Greene*. New York: The Viking Press.

Webster, H. C. (1963). The world of Graham Greene. In R. O. Evans (Ed.), *Graham Greene: Some critical considerations* (pp. 1-24). Lexington: University of Kentucky Press.

Woodman, T. (2002). Graham Greene and the paradoxical church of *The Power and the Glory*. In W. T. Hill (Ed.), *Perceptions of religious faith in the work of Graham Greene* (pp. 139-152). New York: Peter Lang.

Yamagata, K. (2002). Literature, religion and politics in Graham Greene. In W. T. Hill (Ed.), *Perceptions of religious faith in the work of Graham Greene* (pp. 391-426). New York: Peter Lang.

예시 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Tertiary

이광희
공주대학교 인문사회대학 관광영어통역학과
314-701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
Tel: 041-850-8973
Email: leekh@kongju.ac.kr

Received in July, 2009
Reviewed in August, 2009
Revised version received in September, 2009